# 중앙교회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175장** ····· **다같이**

1.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후렴〉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2.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으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3.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4.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다니엘 5:17-24(표준새번역)** ····· **인도자**

17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21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22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23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 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설 교 ·····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 ····· 인도자**

**첨부한 그림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그림 설명은 설교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단 그림 이미지의 외부 배포는 안됩니다. 가정에서만 사용해주세요**

**기 도 ····· 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이 더욱 복 받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 다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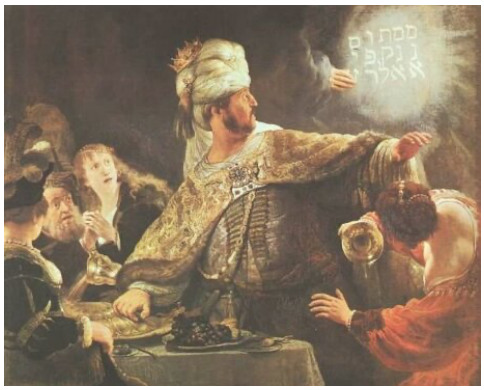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17-24)**

느부갓네살이 44년 통치하다 죽고, 몇 대 후에 외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했다. 벨사살은 벨드사살과 마찬가지로 ‘벨(신)이 왕을 지키시기를!’이란 의미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모아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나라는 전쟁 중이고 부왕은 전장에 나가 있는데, 지도층들은 모여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벨사살은 호기를 부린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온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자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물을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기물로 쓰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신성모독이다. 최소한 느부갓네살은 그것들을 탈취해 왔어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벨사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했다.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우상의 재질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 ▶이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응하셨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모세의 돌판에 계명을 써주신 이후 처음이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6절). 왕은 바벨론의 술객, 술사, 점쟁이, 지혜자들을 불러보았지만,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 한다. 결국 왕비(태후)의 소개로 은퇴했던 다니엘이 소환된다.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소환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일종의 해결사다. 사람들은 그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70대 고령이었을 것이다. ▶왕은 다니엘이 문자를 읽고 해석하면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보수를 거절한다. 복채를 바라고 풀이하는 것은 무당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의 생애 중 중대한 사건을 회상시킨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쳐서 미치게 하고 짐승들과 함께 거하게 함으로 낮추신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줄을 알게 된 후에 회복된 사실을 밝힌다. 선조의 역사를 통해 배웠어야 했는데 벨사살 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으면서도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책망한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지자적 기소를 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함으로 복권이 되었지만, 벨사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 교만의 종말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 맞이했다. 회개 여부에 있었다. ▶이제 다니엘은 문자를 읽고 해석한다. 문자는 이렇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와 시대를 세어서 끝을 내신다는 의미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왕이 하나님께 저울로 달아 부족함이 뵈었다는 의미다. ‘바르신’은 ‘나누다’는 의미로,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에게 나뉘어 주어질 것이라고 한다. 메네, 세겔, 바르신은 사실은 동일한 사태를 묘사하는 세 가지 다른 용어다. 심판, 심판, 그리고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벨사살이 당한 것은 느부갓네살과 달리 경고도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전에 주신 은혜의 시간이 다한 것이다. 이 말은 벨사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은혜의 유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결국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에 물길을 이용해서 침입해서 잔치를 벌이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날의 벨사살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다. 장례식이었다. 벨사살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알지 못한, 세속적인 의지와 환락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해서 신바벨론 제국은 멸망했고, 왕은 죽었고, 왕국은 분열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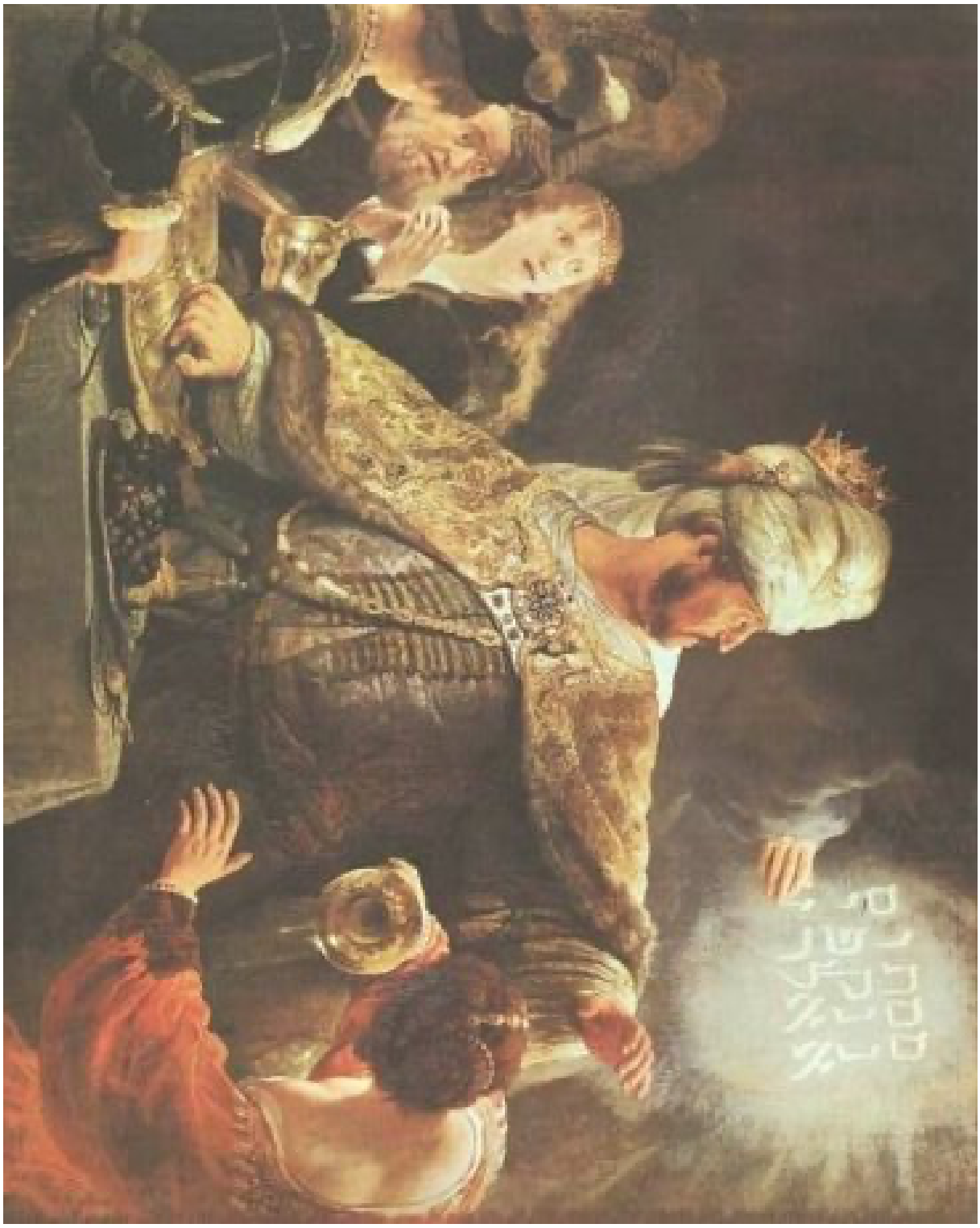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며 하나님을 무시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함으로 그가 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하였고, 그가 1,000명의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적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알아 내지 못한 글씨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알아 내고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벨사살을 벌주고,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메대의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